한라시론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험 가입은 필수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겨울철인 요즘도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 봄날인가 착각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 등을 통틀어 기후변화라고 하며, 기상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세 단계 수준의 시나리오별로 미래의 기후를 보면 기온과 강수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 있지만 바람에 대해서는 전망치가 없고, 다만 태풍의 빈도를 과거와 최근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은 연평균 26.1개였고 그 중 4.0개가 영향을 미쳐서 과거 30년간 연평균 25.1개가 발생해 3.4개가 피해를 준 것과 비교해 보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각적인 느낌으로 태풍수준의 강풍특보 발효도 과거에 비해 자주 있는 것 같다.

제주도는 태평양 가장자리에 태풍의 피해를 직접 받게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소득이 높은 작물을 선택해 재배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다 보니 현재 대략 4700ha로 전체 농경지면적의 10%정도에 이르고 있다. 피복 비닐은 햇빛과 바람에 의해 강도가 점차 약해져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는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 가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두개의 법을 제정하고 보험업자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는 두 개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시판중인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은 여러 회사에 가입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각각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 관련 보험은 한 개의 회사에만 가입해야 하며, 비닐하우스를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의 18%정도만 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하고 82%는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물에 정부의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회사에만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하우스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피해는 비닐파손과 시설이 무너지는 것이 포함되지만 사고접수의 대부분은 비닐파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인과 보험사간 입장이 다른 것은 피해율과 보험금 지급수준이다.

예를 들어 비닐파손 피해율 10% 이하는 보험료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30%정도는 책정된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나, 농업인은 이정도 피해면 피복비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해율과 보험금 지급관계는 전국 공통적인 문제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농업관련 보험은 보험료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특수한 보험이며 예산은 한정돼있으므로 소진되기 전 연초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사설

주민자치회 안착, 자율성·전문성 확보 달려

주민 주도의 혁신적인 자치활동을 펼쳐 나갈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의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주민이 자기결정과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는 8개의 주민자치회가 닻을 올렸다. 제주시 관내는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 서귀포시 지역 4개 주민자치회는 7일 발대식을 가졌다. 제주시도 9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2월부터다.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회별 위원 구성은 완료됐지만 주민자치회를 대표할 자치회장 선출 등은 1월 중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돼서다. 주민자치회 핵심 업무인 자치계획은 오는 4~5월쯤 수립될 전망이다.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그 계획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기존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 역할과는 기능이 판이하게 다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 주민자치 안착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두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서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과도한 권한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자치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도 이뤄져야 한다. 이미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인 타 시·도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앞으로 더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기부금액수와 건수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때문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오름 보전과 반려동물 힐링 쉼터 조성을 위한 모금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정 사업에 대한 기금 지정 기탁을 통한 첫 시도로 향후 다른 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7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로 35억9334만원이 모금됐다. 2023년 18억2335만원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건수도 3만3928건으로 전년 1만6608건 보다 104%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20대 기부자가 전년 대비 174% 증가하는가 하면 30대도 가장 많은 34.1%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98.9%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보였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연속 기부자 예우 정책 신설과 답례품 관리 강화 등 차별화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제주도는 풀이하고 있다. 이 기간 전국 잠정 모금 실적은 79만건, 89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50%, 모금액은 37% 늘었다.

기부금의 증감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다. 제주에 기부할 수 있는 매력과 필요성에 따른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이 '제주를 제주답게' 만들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의미 있는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관리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제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홍보활동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다.

열린마당

전기자전거로 그리는 제주의 새로운 일상

오 명 수
제주도 자전거정책팀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광고 카피처럼, 자전거는 청춘의 설렘과 가족의 행복, 일상의 여유를 상징해 왔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전거는 점차 한 자락의 낭만으로만 남아, 실용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자전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2023년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자전거팀을 신설했다. 오는 2월부터는 '직원 출퇴근용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청사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출퇴근시간대 무분별한 전기자전거 방치와 불법주정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들의 자전거 출퇴근이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 도민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전거가 제주도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동반자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김완근 시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문

지역상권 소비 촉진 주문도

○…김완근 제주시장이 8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함께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비촉진 계획을 주문.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한 김 시장은 부서별로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속히 규제 개선 계획 수립을 주문.

김 시장은 "공공분야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 지난해 부족했던 재정집행 실적을 상반기에 채운다는 각오로 집중하고, 소비촉진 행사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연간 전통시장·지역상권 소비 촉진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 문미숙기자

"올해 교육 명확하게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 키우는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9일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제주교육정책을 본격 추진.

도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도교육청 전 부서를 시작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 직속기관을 차례로 돌며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올해 업무보고는 각 실·국별로 과장급 이상만 참석해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 부서 팀장급 이상이 참여해 각 부서 간 추진 사업을 공유 및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

김광수 교육감은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올해 제주 교육정책은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 박소정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양홍공 순병(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월 9일
배우자 고창자
아들 홍동근 홍승희 홍민정 홍경희 홍진영 홍지숙
딸 며느리 양소형
사위 김건일 박근철 박정환 김충우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119-3820, 010-3692-8420